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

김성득_간사

한국도서관협회 부산지구협의회(이하 부산지협)는 부산지구내의 모든 도서관과 기타 독서시설을 갖춘 기관의 협력 하에 도서관 사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의 문화창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1963년 3월 9일 부산지구도서관협의회를 결성하여 《도협월보》 5월호에 본 협회의 창설을 소식란에 게재하였다. 그 후 1964년 7월 18일에 부산지구도서관협의회와 경남지구도서관협의회는 과거의 도서관사업이나 앞으로의 도서관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에 구애됨이 없이 통합하여 활동함이 좋겠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여 “부산·경남지구도서관협의회”를 통합 발족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올해로 만 41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지협은 매년 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의 직무교육 및 세미나 개최, 범시민독서운동의 추진 및 지도와 회원들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을 위한 연수회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등록을 마친 자 또는 단체로 하고 있다.

운영조직은 회장 1명(現 전희준 회장), 관종별 부회장 각 1명, 이사 35명으로 하되 관종별 이사 수를 적의 배분하며, 감사 2명, 간사 1명,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부산지협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간략히 살펴보면 1965년 제4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부산시립도서관에서 개최, 1965년 10월 한국도서관협회 부산·경남지구협의회 회보 《圖鄉》 창간호 발행, 1970년 5월 제9회 전국도서관대회와 1978년 제16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부산교육대학에서 개최, 1985년 5월 28일 백린선생 초청 강연회를 부산교육대학에서 개최하였다. 또한 2001년도에는 부산시내 대학, 공공도서관의 우수사서와 학교도서관 우수사서교사 등 12명을 선발, 국내 선진도서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 2월에는 『釜山の 圖書館史』(4x6배판 502쪽)를 발행하였다.

올해에는 《圖鄉》 제10호를 발행하였으며, 시민독서캠페인을 위한 『마음밭 걸우기』(리플렛)를 창간,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으며 8월에 제4호를 발행, 배포한다.

부산지협의 중점사업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생활화’를 위한 강의 및 상담활동,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서 읽기를 위한 도움활동으로 독서지도교사와 동아리활동 협조 및 학년별 권장도서 선정, 시민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관련 강의 및 상담, 리플렛(마음밭 걸우기) 제작·배부, 부산지협회보를 계간으로 발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및 연구결과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 근무 사서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우수사서 및 사서교사에 대한 표창과 선진도서관 견학, 그리고 정기적인 연수회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지협은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도서관 발전과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도 부산지역의 도서관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독서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문의: 간사 김성득, 전화: 051-332-9790, 전송: 051-343-6191,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2동 산 42-36 구포도서관 내, E-mail: ksd100su@hanmail.net]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 병 일 _ 사무국장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문제는 변호사나 법대 교수 등 전문가들만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사건 등 MP3음악 파일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사건과 더불어 디지털 도서관이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의 문제, 특히로 인한 고가의 약에 대한 접근권 문제 등 사실 지적재산권 제도는 우리의 일상적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갈수록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http://www.ipleft.or.kr>)

모임이 시작된 계기는 1999년 2월에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공감하고 일종의 스터디 모임을 꾸렸다. 이것이 '지적재산권 연구회'인데, 이후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2000년 2월),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2년 2월)로 이름을 바꾸었다.

IPLeft는 매주 모임을 갖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 현 시스템의 문제점, 카피레프트 운동 등 대안적인 흐름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모아 2000년 4월에는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2000년 8월에는 단행본 『디지털은 자유다』(이후)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IPLeft는 단지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구체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2001년 5월), 특허가 의약품의 가격을 높여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 청구를 하기도 하였다.(2002년 1월) 한편, 소리바다, 벅스뮤직, MP3폰 등의 사회 현안에 대해 '정보공유적 관점'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특허법, 사법경찰관법 등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제시도 주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IPLeft는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고자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창작자(문화자본)의 사적인 독점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음에 대해 비판한다. 그리고,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정보 영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2004년에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개발하였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IPLeft는 상근자 중심의 모임이 아니다. 변리사, 사회단체 활동가, 회사원, 학생, 백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며 매주 한번씩 회의를 갖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p@list.jinbo.net 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데 현재 약 1000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다. IPLeft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에서 자신의 e-mail 주소를 넣으면 가입할 수 있다.

[문의 : 사무국장 오병일, 전화 : 02-7744-551, 전송 : 02-7744-553,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E-mail : antiropy@www.jinbo.net]